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반응특성 연구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Responses to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s

영남대학교 보건미술치료학과

석사 정윤정

영남대학교 보건미술치료학과

교수 최외선

Art Therapy Maj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Jung, Yun-Jung

Professor : Choi, Wae-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usefulness of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 as a diagnostic measure for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four hundred thirty five(272 male and 163 female) university freshmen enrolled in 4-year colleges located in Pusan.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sca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s test.

The evaluation system for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s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indexes of Buck(1948) and Burns(1972) and used exiting literatures as refere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level of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was 2.81, which is about average. Som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areas of self-intergration, family projection, and emotional separation. Male students scored higher on self-intergration, whereas female students score higher on family projection and emotional separation.

Second, self-differentiation was higher when the student drew a house with smoke coming out of the chimney, a single-story house with flat roof, or with detailed description of curtains, roof and roof tiles.

Third, self-differentiation seemed to be higher when branches and fruits were included, when there was no expression of roots, when large crowns and branch openings were presented, and when no slant lines or base lines appeared.

Forth, self-differentiation showed □ higher level when the portrait shows eyes, mouth and neck without omission, when it included the whole body instead of face only, and when there was no person with just a profile, a back, or with a stiff posture, and when there was no weak and thin lines. Individuality also marked higher if a person was in motion and than one person was added.

Finally, self-differenti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overall harmony of the drawing, ordering of contents, hand pressure, the kind and shape of tree, and presence of other persons. The more harmonious the picture was, and the more family members are adde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was.

▲주요어(Key Words) :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s),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입시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을 유보한 채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겪게 된다(박유화, 2001). 또한 이 시기는 심리적, 정서적 및 행동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자주 갈등을 자아내는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볼 때 그러한 완전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립과 부모에의 의존, 자율과 권위애의 복종, 친우와 가정애의 충성 등의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그것이다(위영희, 1988, 재인용).

우리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사회규범은 특히 개인을 가족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생을 가족관계에 묶어 놓을 만큼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생활고를 비판한 어머니가 세 자녀와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대입 낙방을 비판한 주부가 목매 자살(뉴시스, 2003) 하고, 딸의 자살을 비판한 아버지가 자살(오마이뉴스, 2003)을 하는 등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 가치체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 정신분석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동반자살은 자신과 타인을 분화하지 못한 정신적 미성숙의 결과로 인간을 개별적 주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한국적 정서와 맞물려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이러한 한국적 정서로 인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에 따라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때 그림이라는 매개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림이라는 매개체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신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저항 없이 무의식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언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김재은, 1988) 개인적 감정, 생각, 경험, 가치,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게 한다(Cathy A. Malchiodi,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그림검사들이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는 Buck에 의해 고안된 H-T-P 검사의 변형으로 Burns가 고안한 기존의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에 동작성을 가미시킨 그림 검사이다. Burns는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그린 그림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만 H-T-P를 전체적으로 봄으로써 나타나는 역동성은 H-T-P 검사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K-HTP는 KFD와도 관계가 있는데(김동연외, 2002) KFD에서도 기존의 가족그림(DAF)에서 볼 수 없는 행동, 교류관계, 표현양식 그리고 상징들을 산출해냈다. 그와 마찬가지로 K-HTP에서의 해석도 H-T-P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밀착, 거리, 순서, 크기, 스타일, 상징 등을 중요시하였고, KFD가 가족의 역동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K-HTP는 집, 나무, 사람과의 역동성을 통한 가정상과 그 외의 상징과 등장인물, 사후 질문지 등을 통한 또 다른 청년기의 발달특징인 교우관계, 이성관계, 직업의식, 가치의식 등의 자아상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분화와, 가정상과 개인의 자아상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K-HTP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K-HTP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체점체계를 구축하여 K-HTP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아분화와 K-HTP와의 관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K-HTP와의 반응특성과의 관계연구를 통해 K-HTP가 효율적인 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K-HTP 반응특성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시기의 특성

청소년의 대학진학 이후의 발달과정 및 적응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상담심리학자들과 발달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대학시기는 성격발달단계로 볼 때 극심한 심리,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시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수동적인 생활을 강요받아오던 학생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대학생활에 접할 때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단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같은 청년기에 속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기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발달특징을 자아의식과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자아의식

자아는 'self'나 'ego'로 표현되는데 self나 ego는 성격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말로 자아개념의 발달은 자신을 독특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의식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동안 연령에 따른 상승형상을 나타내나(김형태, 1989 ; 윤여금, 2001) 고등학교 시기에는 일시적인 하강 내지 정체현상을 나타낸다. 자아의 성숙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대학 3학년경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빠른 발달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 이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나타낸다(서봉연, 1975). 이는 대학 1. 2학년 시기가 자아의식의 성숙기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모호성이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극심하다. 컴퓨터의 생활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아이디'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상화된 사이버 자아로 '다중인격'을 형성하기도 한다(장호균, 2003). 이러한 사이버 자아가 생성됨으로 인하여 현실에서의 자아로부터 개인이 분화된다. 이 분화가 왜곡되면 자기분절(self-fragmentation)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현실에서의 정체성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주미혜, 2001, 재인용).

현실의 자기를 과장된 자기로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을 바꾸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체성 실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현수, 2001).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자아가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공간에서도 재현되는 모습은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찾아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됨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부모와의 관계

무조건 의존적이던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점차적으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하지만 자녀는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생활의 전반을 부모에게 의존해오다 대학에 들

어간 후 갑작스런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계로 발전하며 그 대처방법 또한 달라야 하는데 대학생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틀속에서의 부모와 자녀라는 단순한 관계뿐만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보다 사회화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인 자녀와 중년부모세대는 그들이 지닌 가치관이 다르면서, 시기상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발달적 전환시기에 처해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역할이나 태도를 상대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위영희, 1988). 즉 부모-자녀관계는 이제껏 유지되었던 상·하로 연결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와 자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2. 자아분화

1) 자아분화의 개념

자아분화의 개념은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Bowen(1960)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자-공생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생 관계도 어린이가 어머니에게서 분화되지 못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환자의 미해결된 공생적 애착이 나중 정신분열증이 자리 잡게 될 기본적인 성격문제를 띠게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서적 애착이 비단 엄마와 자녀만이 아니라 전가족을 통해 관계를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Bowen의 독특한 가족체계 이론은 8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은 자아분화,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 가족의 투사과정, 삼각관계, 정서적 단절, 다세대간의 전달과정, 출생순위, 사회적 퇴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아분화는 미분화된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며,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김순재, 1996, 재인용). Hartman(1981)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을 중시하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며 자기 과거나 타인과 단절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신념 및 가치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과정에서 지적 과정이 분화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어 합리적, 객관적 과정보다 주관적 감정에 의존하여 환경을 지각하고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쉽게 부적응에 빠진다고 하였다(Bowen, 1976).

2) 대학생과 자아분화

정신분석학의 현재 동향인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에서 부모의 역할은 부모에게 애착된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부모로부터 분화되는, 즉, 이상적으로 자율적인 자아로 성숙되는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있다(Corey, 1991). Hoffman(1987)은 개인이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가족성원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부적응적 행동인 우울, 불안, 대인관계문제, 약물, 학업문제 등을 많이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Bowen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Hovestadt, Anderson, Piercy와 Cochran(1985) 역시 건강한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자율감과 친밀감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사이의 중요성과 관계성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된 후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 후기에 속한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가 완성되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적이고 반항적이 되기 쉽고 가출을 한다거나 정서적으로 단절을 하는 등의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도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는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인간관계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김순재, 1996)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부부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Austin과 Inderbitzin(1983), Bragan(1990), Fulmer(1982)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되려는 증상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Hoffman(1987)도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경험할 때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부모간에 갈등이 심할 때에도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을 많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권미영, 1993, 재인용).

대학생들의 주요 문제영역을 살펴본 박재욱(198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부 문항별로 보았을 때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이 많음을 보고하였으며, 정은희(1993)에 의하면 대학생활 적응을 의미 있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경화, 천성모, 최정훈(1996)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자율의 부재와 같이 부적응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과잉관심이나 과잉개입을 지적하는

대학생들은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태도면에서 동일시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으로 강하게 애착되어 있으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불만상태의 의존(Lopez등, 1986)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수진(2000)의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분화와 대처행동이 49%로 높게 나타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즉 대학생은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태옥경(1998)의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특히 정서적 단절, 대인관계적 분화, 그리고 정신내적 분화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도석봉(1999)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환경변인 및 자아분화와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효능감의 요인을 연구한 손승희(1999)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아분화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요구, 감정, 특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 자신에 대해 안정적이며 확고한 신념과 확신 및 생활 원리에 따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한 탐색과정에서도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지선(2000)의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강소라, 박혜인(2001)의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건강도 지각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군 경험 유무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 건강도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원의 독립을 우선시하는 서구와 달리 가족의 결속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군 경험이 개인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차승은, 한경혜(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상호작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더 관계가 좋고 독립적임을 보고하였다. 조명희, 박수선(1999)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특히 자아가 통합되어 있고, 가족퇴행 현상이 적고, 분화가 잘되어 있는 핵가족에 속해 있을 경우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화(2001)의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으며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는 속박된 가족, 연결된 가

족, 분리된 가족, 유리된 가족 순으로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높다. 따라서 가족 응집성과 자아분화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inetic House-Tree-Person; K-HTP)

그림은 예술의 한 분야로, 예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정신 분석가들은 예술에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중요시해왔다. 많은 예술은 내적세계와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술치료의 요소를 가진다. 그것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유지시키고 상징화 하는 기능을 가지며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킨다고 하였다(김혜남, 박광식, 1996).

1987년 Burns에 의해 개발된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이하 K-HTP)는 다양한 그림검사의 유용한 면을 하나의 종이 위에 표현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집, 나무, 사람을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리게 하는 K-HTP는 집, 나무, 사람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려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서로간의 상호작용, 운동성이 첨가되어 나타난 피검자의 역동성 등을 모두 함께 알아낼 수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깊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Hammer(1958)에 의하면 집그림은 피험자가 지각한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가정환경과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연상을 일으키는데 피검자가 성장해온 가정 상황을 나타내고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감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무 그림은 피험자의 무의식적이고 감추어진 감정이나 성격과 관련된 연상을 일으키는데 보다 깊은 무의식적인 자기상과 자신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사람그림은 의식에 가까운 부분으로, 자기상과 환경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피험자가 인식하는 자아상이나 이상적 자아상, 또는 중요한 사람과 관련된 연상을 일으키며 피험자의 심리, 사회적인 적응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

Burns(1972)는 위와 같이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그린 그림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만 H-T-P를 전체적으로 봄으로써 나타나는 역동성은 H-T-P검사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K-HTP 그림검사의 반응들을 분석할 때, 집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물리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보고, 나무는 삶의 에너지와 에너지의 방향을 상징하며, 사람은 감독자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K-HTP속에 나타난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집-나무-사람의 각 항목들 간의 밀착관계, 거리, 순서와 크기를 중요시하였으며 전체그림의 조화성, 스타일, 상징 등의 해석도 함께 하였다.

Burns는 이러한 K-HTP의 유용성을 한 피험자에게서 H-T-P와 K-HTP 두개의 검사를 모두 받아 H-T-P만 검사하였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정보에 대한 양적, 질적 증가를 증명하는 47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검사로 통합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Synthetic House -tree -person)가 있는데, 丸野 등은 中井과 Diamond(1954)의 방법을 조합해 만들었다(박경화, 2002, 재인용). SH-T-P는 집, 나무, 사람을 한 장의 종이위에 그리는 것으로 K-HTP와 비교하여 조금 덜 구조화되어 있는데 SH-T-P는 자기상, 가정상의 변용을 의식화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에 K-HTP의 장점을 박경화(2002)의 논문에서 밝힌 SH-T-P검사의 장점을 참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이 적다. 각각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H-T-P검사는 그림을 3장 또는 4장이나 그려야 하기 때문에 피험자에게 주는 심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K-HTP는 1장의 종이 위에 세 가지를 다 그리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보다 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집단 검사시에도 유용하다.

둘째, 정보의 양이 깊고 풍부하다. 집, 나무, 사람 각각을 어떻게 그렸는가에 의한 정보 외에도, 집과 나무와 사람을 어떻게 관련지어 보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외에 나타난 부가물에 대한 정보와 인물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역동성도 볼 수 있다.

셋째, 보다 신뢰롭다. K-HTP를 해석할 때는 각각의 특징 외에도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한다. 지금까지의 그림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림의 부분적 특징보다 전체적인 평가법이 신뢰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는데 조화와 상호관계적인 면을 중요시 해석하는 K-HTP는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보다 신뢰롭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HTP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고 체점체계조차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K-HTP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연, 백양희, 장영숙(1997)의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K-HTP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집그림 양식에서 문의 손잡이가 없는 열린 문을 표현한 집단과 굴뚝이 없는 집단이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나무그림 양식에서는 잎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집단이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람그림 양식에서는 의복의 장식성이 없는 집단과 인물상의 위치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양식에서는 크기순서 변인에서 집, 나무, 사람의 크기로 그린 집단이 가장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냈고 집, 사람, 나무의 순서로 그린 집단이 가장 낮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냈다.

김동연과 최외선(1997)은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특성불안과 K-HTP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집그림에서 문의 손잡이 유무, 커튼의 유무, 굴뚝의 유무, 필압의 정확성 변인으로 무늬 손잡이, 커튼, 굴뚝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특성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나무그림에서는 나무의 조화성, 줄기 형태, 뿌리 형태, 열매 유무, 필압

의 정확성 변인으로 가지가 없고, 줄기가 튼튼하고, 뿌리가 없거나 튼튼하며 열매가 많은 집단이 특성 불안이 낮았다. 사람 그림에서는 발길이, 인물상의 우월성, 그림의 조화성, 필압의 정확성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발이 생략되거나 다리가 3/4이상이고, 인물상의 위치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특성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양식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집단과 필압이 분명한 집단이 특성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최외선과 백양희(1997)의 환경변인에 따른 도시여성의 K-HTP에 의한 집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은 결혼상태로 기혼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2차원적인 지붕을 더 많이 그렸고, 문의 유무와 문의 손잡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은 연령과 결혼상태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의 손잡이를 더 많이 그렸고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문과 문의 손잡이를 더 많이 그렸으며, 커튼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가족수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커튼을 그리는 비율이 낮았으며, 굴뚝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수입과 학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굴뚝을 그리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연기를 그리지 않은 집단이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길의 유무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결혼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과 기혼집단이 곡선의 길을 많이 그렸고, 그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결혼상태로 연령이 낮고 미혼일수록 조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필압이 정확하였다. 그림의 투명성에 미치는 환경변인은 가정생활 만족도로 불만족 집단이 만족집단보다 투명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낮았다.

최외선과 오미나(2002)가 연구한 재가노인의 우울 및 K-HTP 반응특성 비교에서는 문과 창문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았고, 나뭇가지가 없는 집단이 나무와 가지가 조화로운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발이 생략되거나 1/4미만인 경우와, 손이 생략되거나 1/4미만인 경우 우울수준이 높았다. 의복의 장식성에 있어서는 장식성이 없는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여백처리가 적당하고 그림이 조화로운 집단이 우울수준이 가장 낮고 부적당한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았다.

공마리아(2002)가 연구한 장애아 부모의 특성불안과 K-HTP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과 문의 손잡이를 그린 집단이 자신감이 높고, 투시성을 보이지 않은 집단이 더 침착하며, 나무그림에서 줄기의 형태, 뿌리의 형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용이를 그린 집단이 그리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긴장을 많고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사람 그림에서는 손길이가 팔의 1/4인 집단이 더 자신감을 느끼고, 의복의 장식을 적당히 그린 집단이 더 많이 긴장하며, 팔을 생략한 집단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양식에서는 집, 사람, 나무 순서로 그림의 크기를 그림 집단이 특성불안이 높으며 전체그림의 조화성을 이룬 집단이 특성불안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지현과 주은선(2003)의 집-나무-사람 동작성 검사의 문화

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성인 15명과 미국성인 15명을 상대로 그림속의 문화적 요인을 알아보았는데 두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로 귀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관계성 자아'의 측면과 미술교육의 영향이었다. 한국성인들의 K-HTP는 미국성인들에 비해 집, 나무, 사람, 세가지 형상을 동그라미나 삼각형의 구조로 배열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성인의 그림은 같은 선상이나 수직, 수평으로 배열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성인들은 그림에 배경과 부가물을 첨가하고 한사람 이상을 그려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관계성 자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미술교육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인들의 그림은 미국인들에 비해 지면전체에 가득 차고 완성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느 한 방법으로 그리기를 연습 받아온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K-HTP를 질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문혜숙(1998)이 청소년의 EQ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활동의 효과 검증을 위해 K-HTP를 사용하였고, 김미영(2000)은 집단활동이 아동의 우울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K-HTP를 사용하였으며, 박애라(2001)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집단 미술활동을 통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K-HTP를 사용하였다. 박영신(2002)이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검증을 위해 K-HTP를 사용하였고, 원동숙(2003)은 이혼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자기표현훈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K-HTP를 사용하여 자기 인식 및 조절, 자기표현 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타인과의 관계 형성,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상으로 K-HTP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한 K-HTP 그림특성에 나타난 중요한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그림에서 문의 손잡이 유무, 굴뚝의 유무, 커튼의 유무, 문의 유무, 창문의 유무 등이고, 나무그림에서 잎이 차지하는 면적, 나무의 조화성, 줄기형태, 뿌리형태, 열매의 유무, 나뭇가지 유무, 용이의 유무 변인이다. 사람그림에서는 의복의 장식성, 발길이, 인물상의 우월성, 손의 생략, 발의 생략, 손길이, 팔생략 변인으로 나타났고, 전체그림 양식에서는 그림의 크기순서, 필압의 정확성, 그림의 조화, 그림의 투명성, 여백처리 변인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K-HTP를 활용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그 활용성이 낮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KFD와 H-T-P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체점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아분화와 그림검사를 관련시킨 연구로는 농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동적가족화를 활용한 백양희(1997)의 연구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가족화와의 반응특성에 관한 이정숙과 김윤희(200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정숙, 김윤희(2000)의 연구에서는 지우기가 없는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인물이 회전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의 생략이 없고 가족내의 상호작용이 많은

집단인 경우, 인물의 상대적 높이를 연령에 따라 순서적으로 인식한 경우가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K-HTP에서 집, 나무, 사람의 상호작용, 밀착, 크기, 순서, 나무의 모양과 방향, 등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있어왔지만, 가족 역동성의 주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자아분화와 동적 집-나무-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를 통해 의미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환경에 대한 지각을 알아내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표집은 부산시내 소재의 4년제 대학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학의 정규강의 시간에 조사자와 강의하는 교수님이 함께 들어가 실시하였다. 조사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과 설문지 답안요령, 그림검사의 유의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설문지와 A4용지, 4B연필, 지우개를 배부하였고 검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조사자가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사례수는 설문지와 K-HTP 채점 과정에서 기재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43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교양과목을 듣는 인문대학 학생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 (%)	합계(%)
성 별	남학생	272(62.5)	435(100)
	여학생	163(37.5)	
양친 생존	양친생존	406(93.3)	435(100)
	기타	29(6.7)	
부모와의 동거	동거	338(77.7)	435(100)
	비동거	97(22.3)	
출생순위	만이	165(37.9)	435(100)
	중간	36(8.3)	
	막내	186(42.8)	
	독자	48(11.0)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일반적 특성		빈도 (%)	합계(%)
부학력	국졸	32	435(100)
	중졸	46	
	고졸	252	
	대졸이상	101	
모학력	국졸	37	435(100)
	중졸	79	
	고졸	268	
	대졸이상	49	
생활지역	대도시	289	435(100)
	중,소도시	110	
	기타	34	
월수입	100이하	35	435(100)
	100-200	135	
	200-300	146	
	300이상	112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와 투사기법으로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1) 자아분화

자아분화 측정도구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가 역기능적 행동 및 정신 내적 적응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이 검사지는 전체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하위변인(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자아 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인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사려성, 자기감정의 통제 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자아의 통합으로, 자아는 진아(眞我)와 가아(假我)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이 관계체계 내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가족투사과정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역기능적 증상이 발생하면 부부간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한다. 어릴 때 부터 투사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간의 의사거래 유형과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정서적 단절로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 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족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로 위장된 독립성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가족퇴행으로,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인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아주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

구분	인지 대 정서적 기능	자아 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자아 분화
Cronbach α	.67	.61	.68	.50	.87	.83

2)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그림검사는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종이 위에 집,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리세요. 단 사람을 그릴 때는 만화 혹은 막대기 모양의 사람은 그리지 마세요" 라고 지시하고, 일체의 질문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그림에 대한 사후 질문지를 솔직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달라고 한 다음 A4용지와 4B연필, 지우개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집그림 양식에서 27문항, 나무그림 양식에서 22문항, 사람그림 양식에서 41문항이며 전체 그림의 조화와 관련한 양식의 17문항을 변인으로 한 총 10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HTP 검사의 채점지침의 이론적 근거는 집, 나무, 사람 양식에 있어 Buck(1948)과 Hammer(1958)의 이론을 토대로 임나영(2000)과 오미나(2002)의 논문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전체양식에 있어서는 Burns(1987)의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기타 양식에 관한 변인 부분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다. 채점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 50개를 미술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채점하였다. 연구자와 채점자 A, B간의 신뢰도는 $r = .815$ 와 $r = .940$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PSS Win10.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문지 척도 구성을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K-HTP 반응특성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과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분화수준과 자아분화 하위영역(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자아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별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분화 점수는 최고 144점, 최저 36점을 기준으로 평균 101.48(4점 만점에 평균 2.81)이었다. 각 하위변인들을 문항 점수로 변환하여 보면, 가족퇴행이 평균 2.98로 가장 높고, 가족투사(평균 2.81), 인지 대 정서적 기능(평균 2.74), 자아통합(평균 2.71), 정서단절(평균 2.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족퇴행 영역이 가장 높고 정서단절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자아분화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아통합($t=2.63, p=.009$) 가족투사($t=-2.42, p=.016$) 정서단절($t=-2.57,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아통합 영역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가족투사와 정서단절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스트레스나 주위환경에 대한 압력을 느낄 때라도 신념과 견해,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이며, 관계체제의 영향을 여학생보다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부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자식에게 투사하는 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덜 받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스스로 독립되어 가출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정도도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N=435

하위영역	전체 M(SD)	남 M(SD)	여 M(SD)	t값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9.20(3.24)	19.00(3.35)	19.55(3.05)	-1.71
자아통합	16.29(2.44)	16.53(2.51)	15.91(2.29)	2.57*
가족투사	16.90(3.20)	16.61(2.51)	17.39(3.35)	-2.47*
정서단절	16.13(2.85)	15.86(2.80)	16.58(2.84)	-2.57*
가족퇴행	32.84(5.62)	32.61(5.75)	33.24(5.40)	-1.12
자아분화	101.48(10.86)	100.69(11.10)	102.81(10.35)	-1.94

2) 대학생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대학생들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대학생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N=435

	구분	N	M	SD	F값
인지	만이	162	18.98	3.33	.511
	중간	36	19.47	3.51	
	막내	183	19.37	3.31	
	독자	48	19.10	2.46	
자아통합	만이	164	16.14	2.53	.97
	중간	36	15.89	2.77	
	막내	185	16.44	2.34	
	독자	48	16.56	2.32	
가족투사	만이	164	16.92	3.51	1.41
	중간	36	17.44	3.28	
	막내	185	16.98	3.09	
	독자	47	16.08	2.28	
정서단절	만이	164	15.89	2.84	.65
	중간	36	16.22	3.05	
	막내	182	16.26	2.83	
	독자	48	16.37	2.67	
가족퇴행	만이	164	32.82	5.98	1.88
	중간	35	33.28	5.17	
	막내	186	32.37	5.49	
	독자	48	34.48	4.98	
자아분화	만이	158	100.75	11.46	.56
	중간	35	102.68	10.50	
	막내	177	101.59	11.08	
	독자	47	102.64	7.92	

3) 대학생의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대학생들의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 대학생의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N=435

	구분	N	M	SD	t값
인지	동거	332	19.22	3.18	.237
	별거	97	19.13	3.48	
자아통합	동거	338	16.27	2.41	-.470
	별거	95	16.40	2.60	
가족투사	동거	335	16.83	3.25	-.888
	별거	97	17.15	3.02	
정서단절	동거	333	16.19	2.86	.758
	별거	97	15.94	2.75	
가족퇴행	동거	336	32.93	5.51	.598
	별거	97	32.55	6.02	
자아분화	동거	322	101.58	10.76	.341
	별거	95	101.15	11.25	

2. K-HTP 반응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

K-HTP 반응특성은 집, 나무, 사람, 전체 양식으로 분류하고, 각 양식의 하위변인과 자아분화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자아분화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1) K-HTP 집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 검정

<표 6>에 의하면 자아분화와 집그림 변인간의 유의미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자아분화 전체 영역의 집그림 양식에서는 문의 크기를 들 수 있다. 집에 비해 문이 작지 않으면(t=2.42, p<.05)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집에 비해 문도(t=-2.20, p<.05) 크지 않은 문에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붕이나 기와의 세부묘사(t=-1.96, p<.05)는 지붕에 기와나 장식품 등의 세부묘사가 있는 것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단층이나 평면, 뾰족지붕(t= 1.80, p<.01)모양과 굴뚝의 연기(t=1.85, p<.01)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에서는 강한 선의 표현(t=2.47, p<.05)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강한 선이 없는 집단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통합 영역에서는 굴뚝의 연기 유무(t=2.00, p<.05)와 지붕과 집의 비율(t=2.75, 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굴뚝의 연기를 그린 집단이 자아통합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전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다. 즉, 굴뚝의

유무변인은 자아분화 수준을 알아보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집과 지붕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도 자아통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강한 선의 표현유무($t=-2.66, p<.01$)는 강한 선을 표현한 경우가 자아통합이 높았다.

가족투사 영역은 커튼의 유무($t=-2.07, p<.05$)변인과 강한 선의 표현($t=-2.06, p<.05$)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창문에 커튼이 있는 경우와, 강한 선의 표현이 있는 경우가 가족투사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정서단절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집에 비해 문이 작은 경우($t=2.01, p<.05$) 변인이다. 즉 작은 문을 그렸을 경우 정서단절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가족퇴행 영역에서는 굴뚝의 연기 유무($t=2.08, p<.05$), 단층, 평면 뾰족지붕모양($t=2.70, p<.001$), 지붕이나 기와의 세부묘사 유무($t=-1.95, p<.05$)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단층, 평면이고 뾰족지붕 모양을 그린 집단이 그러한 모양을 그리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굴뚝의 연기가 없는 경우와 지붕이나 기와의 세부묘사가 없는 경우도 가족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통합 영역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집그림 양식에서는 굴뚝

의 연기유무, 커튼의 유무, 단층·평면·뾰족지붕 유무, 지붕이나 기와의 세부묘사, 집에 비해 작은 문, 집에 비해 큰문, 지붕과 집의 비율, 강한 선의 표현 등이 자아분화 수준을 알아보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2) K-HTP 나무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K-HTP 나무그림 양식의 반응특성에 따라 자아분화전체와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 7>와 같다. <표 7>에 의하면 자아분화전체와 나무그림 변인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열매($t=-2.15, p<.05$) 변인이다. 열매를 그린 집단이 열매를 그리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 있어 열매를 해석함에 있어 의존이나 퇴행으로 보았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에서는 나뭇가지($t=2.40, p<.05$), 가지끝이 열려있다($t=-2.25, p<.05$),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t=2.12, p<.05$)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뭇가지가 있는 경우와 가지끝이 열려있는 경우,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이 없는 경우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K-HTP 집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결과표

N=435

변인	구분	자아분화전체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굴뚝의 연기	없다 있다	101.96(10.72) 99.46(11.30)	1.85	19.28(3.33) 18.87(2.86)	1.02	16.42(2.48) 15.82(2.27)	2.00*	16.97(3.17) 16.57(3.32)	1.01	16.11(2.78) 16.26(3.01)	-0.44	33.13(5.52) 31.70(5.95)	2.08*
커튼	없다 있다	101.40(10.88) 101.85(10.84)	-0.96	19.27(3.27) 19.01(3.15)	0.68	16.37(2.44) 16.07(2.45)	1.07	16.72(3.07) 17.46(3.56)	-2.07*	16.12(2.74) 16.18(3.09)	-0.15	32.84(5.59) 32.88(5.76)	-0.06
단층,평면 뾰족지붕	없다 있다	101.80(10.80) 98.41(11.07)	1.80	19.24(3.24) 18.82(3.27)	0.78	16.30(2.39) 16.30(2.90)	-0.02	16.94(3.18) 16.46(3.40)	0.91	16.17(2.83) 15.87(2.80)	0.62	33.09(5.55) 30.61(5.97)	2.70**
지붕 기와의 세부묘사	없다 있다	100.66(10.38) 102.78(11.46)	-1.96*	19.09(3.26) 19.37(3.21)	-0.87	16.21(2.29) 16.42(2.65)	-0.85	16.84(2.95) 16.98(3.54)	-0.43	15.93(2.75) 16.45(2.91)	-1.84	32.42(5.23) 33.49(6.14)	-1.95*
집에 비해 작은문	없다 있다	102.23(10.94) 99.23(10.32)	2.42*	19.34(3.24) 18.81(3.25)	1.46	16.42(2.35) 15.94(2.69)	1.76	17.05(3.26) 16.42(2.96)	1.78	16.31(2.86) 15.64(2.69)	2.02*	33.03(5.72) 32.28(5.31)	1.19
집에 비해 큰문	없다 있다	101.21(10.81) 106.04(10.86)	-2.20*	19.16(3.27) 19.92(2.75)	-1.15	16.25(2.42) 16.96(2.70)	-1.42	16.83(3.19) 17.88(3.17)	-1.62	16.09(2.81) 16.88(2.91)	-1.38	32.75(5.63) 34.38(5.49)	-1.43
지붕과 집의 비율	없다 있다	101.64(11.57) 101.43(10.48)	0.18	19.31(3.12) 19.00(3.46)	0.93	16.75(2.48) 16.07(2.40)	2.75*	16.74(3.09) 17.18(3.39)	-1.33	16.17(2.80) 16.08(2.87)	0.32	32.99(5.55) 32.57(5.77)	0.72
강한 선의 표현	없다 있다	101.46(10.88) 101.90(10.76)	-0.24	19.35(3.17) 18.13(3.64)	2.47*	16.19(2.41) 17.19(2.53)	-2.66**	16.74(3.23) 17.54(3.05)	-2.06*	16.16(2.79) 15.97(3.07)	0.42	32.79(5.64) 33.33(5.50)	-0.62

* p<.05 ** p<.01

자아통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t=-2.41, p<.05$) 변인으로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이 있을 때 자아통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큰수관($t=-2.18, p<.05$), 기울어짐($t=2.09, p<.05$), 기저선($t= 1.98, p<.05$) 등이다. 나무의 수관이 큰 집단이 자아통합 수준이 높으며, 기울어진 나무와 기저선의 표현은 자아통합 수준이 낮았다.

가족투사 영역에서는 열매($t=-2.41, p<.05$), 나무에 비해 큰 수관($t= -2.22, p<.05$), 가지끝이 열려있다($t=-2.25, p<.05$)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열매가 있는 경우가 가족투사 수준이 높으며, 나무에 비해 큰 수관 변인은 자아통합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변인으로 큰 수관을 그린 경우가 가족투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지끝이 열려있는 경우도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과 같이 가족투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단절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뿌리($t=2.32, p<.05$)와 열매($t= -2.26, p<.05$)로 나타났다. 뿌리를 그리는 집단은 그리지 않은 집단보다 정서단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열매는 자아분화전체 영역과 가족투사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듯이 열매가 있을 때 정서단절 수준이 높으며 열매가 없는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낮았다. 가족퇴행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무그림 양식에서는 나뭇가지, 뿌리, 열매,

나무에 비해 큰 수관, 가지 끝이 열려있다,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 기울어짐, 기저선 변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3) K-HTP 사람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K-HTP 사람그림 양식의 반응특성에 따라 자아분화전체와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자아분화전체 영역에서는 딱딱한 자세($t=2.35, p<.05$)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측면이면서 미숙한 인물을 그린 경우($t= 2.48, p<.05$)가 인물의 정면을 그린 경우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에서는 목($t=2.25, p<.05$)과 딱딱한 자세($t=2.10, p<.05$)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딱딱한 자세는 자아분화전체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 자아분화의 수준과 높은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목이 없는 경우와 딱딱한 자세를 그린 집단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자아통합 영역에서는 측면 그림이면서 미숙한 인물($t=1.91, p<.05$), 등을 보인 인물($t=2.11, p<.05$)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측면이면서 미숙한 그림을 그린 집단과 등을 보인 인물을 그린 집단이 자아통합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

<표 7> K-HTP 나무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결과표

N=435

변인	구분	자아분화전체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나뭇가지	없다	100.31(11.38)	-1.51	18.63(3.27)	-2.40*	16.14(2.30)	-0.90	16.78(2.99)	-0.50	16.00(2.66)	-0.63	32.65(5.87)	-0.52
	있다	102.05(10.61)		19.45(3.21)		16.37(2.50)		16.95(3.29)		16.18(2.89)		32.96(5.51)	
뿌리	없다	101.68(10.79)	0.86	19.12(3.26)	-1.41	16.33(2.35)	0.57	16.87(3.12)	-0.46	16.24(2.79)	2.32*	32.97(5.56)	1.10
	있다	100.22(11.52)		19.82(3.05)		16.06(3.13)		17.10(3.85)		15.23(2.95)		32.02(6.04)	
열매	없다	100.92(10.97)	-2.15*	19.09(3.33)	-1.23	16.27(2.41)	-0.42	16.84(3.17)	-2.41*	15.96(2.84)	-2.26	32.71(5.59)	-1.09
	있다	103.56(10.31)		19.55(2.88)		16.39(2.57)		19.08(3.75)		16.69(2.71)		33.41(5.68)	
나무에 비해 큰수관	없다	101.14(11.06)	1.49	19.15(3.23)	-0.61	16.18(2.49)	-2.18*	16.73(3.20)	-2.22*	16.06(2.86)	-0.94	32.87(5.69)	0.02
	있다	103.07(9.97)		19.39(3.29)		16.83(2.19)		17.60(3.15)		16.39(2.62)		32.85(5.33)	
가지끝이 열려있다	없다	101.23(11.35)	-1.49	19.07(3.35)	-2.25*	16.34(2.49)	0.64	19.06(3.35)	-2.25*	16.07(2.85)	-0.94	32.81(5.81)	-0.54
	있다	102.93(8.01)		19.86(2.56)		16.13(2.19)		19.85(2.55)		16.41(2.67)		33.15(4.56)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	없다	101.54(10.67)	0.08	19.38(3.08)	2.12*	16.15(2.37)	-2.41*	16.94(3.26)	0.46	16.16(2.83)	0.45	32.83(5.53)	-0.22
	있다	101.43(11.54)		18.60(3.68)		16.81(2.64)		16.77(3.03)		16.01(2.78)		32.98(5.92)	
기울어짐	없다	101.71(10.83)	0.72	19.24(3.11)	0.52	16.43(2.46)	2.09*	16.90(3.28)	0.06	16.15(2.80)	0.39	32.82(5.61)	-0.34
	있다	100.75(11.05)		19.03(3.73)		15.81(2.33)		16.88(2.87)		16.02(2.88)		33.05(5.65)	
기저선	없다	101.90(10.65)	0.73	19.31(3.15)	0.76	16.54(2.48)	1.98*	17.05(3.35)	0.98	15.98(2.75)	-1.09	32.89(5.66)	0.09
	있다	101.12(11.09)		19.07(3.33)		16.07(2.39)		16.75(3.05)		16.27(2.88)		32.84(5.58)	

* p<.05

면그림 또한 자아분화의 중요한 변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가족투사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눈($t=2.09$, $p<.05$), 입($t=2.61$, $p<.05$), 목($t=2.60$, $p<.05$) 등으로 세부묘사의 유무를 보는 변인들이었다. 눈, 입, 목이 있는 경우가 가족투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으로는 딱딱한 자세($t=1.99$, $p<.05$) 변인으로 자아분화전체영역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듯이 딱딱한 자세를 그린 경우 가족투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단절 영역에서는 입($t=2.41$, $p<.05$), 얼굴만 그린 경우($t=2.63$, $p<.01$) 변인으로 입과 얼굴만 그린 경우가 정서단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인물의 운동성($t=-2.01$, $p<.05$)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운동성이 없는 경우가 정서단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퇴행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측면그림($t=2.18$, $p<.05$), 약하고 회미한 선의 표현($t=2.17$, $p<.05$), 인물의 운동성($t=-2.22$, $p<.05$) 변인이다. 측면그림, 약하고 회미한 선, 인물의 운동성이 없는 경우가 가족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하나 이상의 인물($t=-2.23$, $p<.05$)이 있는 경우가 가족퇴행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그림 양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눈, 입, 목, 얼굴만 그린 경우, 측면 그림이면서 미숙한 인물, 등을 보이는 경우, 딱딱한 자세, 약하고 회미한 선, 인물의 운동성, 하나 이상의 인물 변인이다.

4) K-HTP 기타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 검정

K-HTP 기타양식의 반응특성에 따라 자아분화전체와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 9>과 같다. <표 9>에 의하면 자아분화전체 양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그림의 조화($t=2.95$, $p<.05$), 그린 순서($t=3.84$, $p<.05$) 변인이다. 그림이 매우 조화로울 때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집을 제일 먼저 그린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그림의 조화 변인은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그린순서 변인에서 집을 제일 먼저 그린 집단과 나무와 사람을 먼저 그린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집을 제일 먼저 그린 집단이 나무와 사람을 먼저 그린 집단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에서는 자아분화와 전체 영역에서와 같이 그림의 조화($t=3.97$, $p<.05$)변인이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그림이 매우 조화로운 집단

<표 8> K-HTP 사람그림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결과표

N=435

변인	구분	자아분화전체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눈	없다	100.58(11.06)	1.55	19.39(3.30)	1.28	16.13(2.51)	-1.49	17.18(3.37)	2.09*	16.26(2.84)	0.97	33.16(5.63)	1.25
	있다	102.26(10.65)		18.99(3.13)		16.49(2.34)		16.52(2.95)		16.00(2.79)		32.48(5.59)	
입	없다	102.32(11.03)	1.83	19.44(3.35)	1.76	16.19(2.42)	-1.09	17.20(3.40)	2.61**	16.41(2.89)	2.41*	32.95(5.65)	0.40
	있다	100.33(10.48)		18.88(3.02)		16.45(2.47)		16.41(2.82)		15.74(2.67)		32.73(5.59)	
목	없다	101.79(10.76)	1.62	19.33(3.19)	2.25*	16.29(2.44)	0.00	17.01(3.16)	2.61*	16.17(2.78)	0.70	32.84(5.68)	-0.33
	있다	98.56(11.52)		18.03(3.54)		16.29(2.54)		15.53(3.44)		15.81(3.27)		33.18(4.91)	
얼굴	없다	101.60(10.88)	0.88	19.21(3.23)	-0.59	16.28(2.43)	-0.71	16.91(3.21)	1.33	16.20(2.81)	2.63**	32.87(5.63)	0.23
	있다	97.66(7.99)		20.00(3.34)		17.00(3.09)		15.16(1.83)		13.17(2.14)		32.33(5.00)	
측면그림이면서 미숙한 인물	없다	102.06(10.71)	2.48*	19.32(3.24)	1.66	16.38(2.44)	1.91	16.88(3.14)	-0.18	16.22(2.81)	1.29	33.10(5.53)	2.18*
	있다	98.21(11.25)		18.57(3.14)		15.72(2.45)		16.96(3.59)		15.70(2.85)		31.38(6.05)	
등을 보이는 인물	없다	101.57(10.87)	0.24	19.23(3.24)	0.19	17.36(2.61)	2.11*	16.94(3.21)	1.41	16.14(2.82)	-0.12	32.89(5.66)	0.43
	있다	101.00(10.65)		19.09(3.14)		16.24(2.43)		15.95(3.03)		16.22(2.89)		32.36(4.94)	
딱딱한 자세	없다	101.94(10.81)	2.35*	19.32(3.26)	2.10*	16.31(2.46)	0.59	16.99(3.21)	1.99*	16.20(2.81)	1.12	33.01(5.69)	1.65
	있다	97.66(10.65)		18.30(2.88)		16.07(2.32)		15.92(3.00)		15.66(2.94)		31.47(4.73)	
약하고 회미한 선	없다	101.97(11.06)	1.05	19.17(3.38)	-0.42	16.16(2.47)	-1.40	16.92(3.19)	0.22	16.24(2.90)	0.91	33.32(5.54)	2.17*
	있다	100.81(10.47)		19.31(2.99)		16.50(2.39)		16.84(3.23)		15.98(2.68)		32.10(5.70)	
인물의 운동성	없다	100.38(11.79)	-1.74	19.18(3.48)	-0.21	16.53(2.59)	1.58	16.67(3.54)	-1.13	15.80(2.99)	-2.01*	32.08(6.27)	-2.22*
	있다	102.28(10.15)		19.25(3.07)		16.14(2.34)		17.03(2.97)		16.37(2.70)		33.37(5.13)	
하나 이상의 인물	없다	101.08(10.85)	-1.37	19.29(3.23)	0.70	16.33(2.52)	0.59	16.84(3.25)	-0.52	16.04(2.78)	-1.23	32.08(6.27)	-2.37*
	있다	102.71(10.79)		19.04(3.25)		16.18(2.23)		17.02(3.09)		16.41(2.90)		33.37(5.13)	

* p<.05 ** p<.01

에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적인 기능이 감정적인 기능에서 분리되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 매우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통합 영역에서는 필압($t=4.31,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스케치선을 그린 집단이 명확한 선을 그린 집단보다 자아통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어 위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을 사용하는 스케치선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투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서단절 영역에서는 그린 순서($t=3.37, p<.05$), 나무의 종류($t=2.68, p<.05$), 나무의 형태($t=2.81, p<.05$)변인이 차이를 보였다. 과일나무를 그린 집단과 집을 제일 먼저 그린 집단, 집쪽으로 향한 나무를 그린 집단이 정서단절 수준이 높았으나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족퇴행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그림을 그린 순서($t=6.52, p<.001$)와 타인의 존재여부($t=4.27, p<.001$) 변인으로 집을 제일 먼저 그린 경우가 가족퇴행 수준이 높고, 현재의 가족을 첨가하여 그린 집단이 가족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집부터 그린 집단이 나무나 사람부터 그린 집단보다 가족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존재여부 변인에서는 현재의 가족을 첨가하여 그린 집단이 기타집단, 첨가한 인물이 없는 집단보다 가족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분화 수준을 알아봄에 있어 K-HTP 반응특성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굴뚝의 연기, 지붕, 기와의 세부묘사, 열매, 나무에 비해 큰 수관, 가지끝이 열려있다, 입, 목, 측면 그림이면서 미숙한 인물, 딱딱한 자세, 인물의 운동성, 그림의 조화, 그린 순서 등은 자아분화 전체 영역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대학생과 자아분화가 낮은 대학생들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수준과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전체 자아분화와 각각의 자아분화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K-HTP 반응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전체 자아분화 수준은

<표 9> K-HTP 기타양식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검정 결과표

N=435

변인	구분	자아분화전체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M(SD)	F값
그림의 조화	부조화	100.76(11.98)	2.95*	19.05(4.01)	3.97*	16.21(2.65)	0.44	16.88(3.89)	0.42	16.18(3.06)	0.87	32.34(6.21)	1.36
	조화	100.35(10.46)		18.78(2.87)		16.20(2.45)		16.75(2.89)		15.94(2.75)		32.54(5.29)	
	매우조화	103.07(10.68)		19.73(3.24)		16.43(2.35)		17.06(3.24)		16.33(2.81)		33.39(5.73)	
필압	모호	95.94(12.83)	2.52	17.83(3.79)	1.89	16.73(2.23)	4.31*	15.52(2.89)	2.08	14.94(2.79)	1.90	30.68(6.20)	1.59
	스케치선	101.58(11.32)		19.35(3.15)		16.56(2.44)		16.86(3.22)		16.13(2.92)		32.83(6.04)	
	명확	101.50(9.82)		19.15(3.29)		15.88(2.42)		17.09(3.18)		16.27(2.67)		33.10(4.92)	
그린 순서	집부터	102.29(10.50)	3.84*	19.19(3.32)	0.10	16.30(2.42)	0.19	16.99(3.26)	0.47	16.32(2.81)	3.37*	33.33(5.14)a	6.52**
	나무부터	100.00(11.82)		19.28(2.88)		16.29(2.61)		16.88(3.16)		15.95(2.84)		31.59(6.36)b	
	사람부터	95.35(12.25)		18.85(4.84)		16.71(2.46)		16.14(3.03)		14.42(3.15)		29.21(7.49)b	
나무의 종류	활엽수	101.49(10.73)	1.64	19.34(3.10)	1.57	16.18(2.37)	0.41	16.89(3.04)	1.26	16.07(2.65)	2.68*	101.48(10.73)	1.64
	침엽수	98.62(9.05)		18.43(2.95)		16.68(2.72)		16.54(3.03)		15.34(3.11)		98.62(9.05)	
	버드나무	98.50(14.05)		18.06(4.35)		16.18(1.93)		16.12(3.09)		16.37(2.98)		98.50(14.05)	
	과일나무	103.51(10.62)		19.55(3.08)		16.39(2.53)		17.31(3.35)		16.79(2.76)		103.50(10.62)	
	겨울나무	100.72(15.07)		19.38(3.82)		16.16(2.87)		17.27(4.89)		14.94(3.45)		100.72(15.07)	
	기타	101.64(8.41)		18.20(4.72)		16.50(2.16)		15.53(2.32)		16.43(2.98)		101.64(8.41)	
나무의 형태	집쪽으로	32.89(5.52)	0.17	19.36(3.02)	0.54	16.28(2.53)	0.02	16.91(3.29)	2.00	16.59(2.94)	2.81*	32.88(5.52)	0.17
	집과반대쪽	32.41(5.44)		18.96(3.48)		16.24(2.49)		17.50(3.04)		16.42(2.44)		32.41(5.44)	
	새와동지	32.50(6.09)		20.25(3.61)		16.37(1.84)		18.62(2.38)		16.25(1.98)		32.50(6.09)	
	기타	32.96(5.76)		19.14(3.31)		16.32(2.40)		16.64(3.19)		15.75(2.84)		32.96(5.76)	
타인의 존재여부	미래의가족	103.43(9.64)	2.13	19.28(3.28)	0.25	18.11(3.28)	1.78	18.11(3.28)	1.78	16.09(3.04)	1.91	33.55(5.05)	4.27**
	현재의가족	104.67(9.09)		19.57(2.78)		16.63(2.47)		16.63(2.47)		17.00(2.58)		35.37(4.74)	
	모르는사람	100.43(9.36)		19.04(3.64)		16.78(3.13)		16.78(3.13)		16.63(2.87)		31.26(3.63)	
	기타	100.20(11.41)		19.08(3.26)		16.85(3.71)		16.85(3.71)		15.90(2.96)		32.21(5.91)	
	없음	100.96(11.30)		19.17(3.33)		16.74(3.04)		16.74(3.04)		15.96(2.73)		32.48(5.82)	

* p<.05 ** p<.01

a, b : 다른 문자로 표기된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평균 101.48(144 만점)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알아본 김치영(1990)의 연구에서 전체의 자아분화 평균점수는 94.37 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미영(1993)의 연구에서는 전체 자아분화 점수가 평균 100.68(표준편차 10.62)이었다. 김보현(1999)이 연구한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평균점수는 99.78,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을 연구한 윤정연(2001)의 논문에서 자아분화 평균점수는 99.84로, 본 연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미란(199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도를 알아보았는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던 김치영(1990), 이해숙(1992), 손승희(1999)의 연구와는 달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은 자아분화도를 보이다가 대학생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퇴행이 4점 만점에 평균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투사, 인지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정서단절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승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박유화(2001)의 연구와 김민경(2003)의 연구에서 가족퇴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즉 대학생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영역에서 가장 높은 분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의 결과가 가족퇴행을 제외하면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자아분화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낮을수록 자아분화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교 1학년 생으로 아직도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는데 반해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수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 등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아분화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정미란(1994)과 김미정(1997)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연구에서 여성이 분리가 더 잘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지만,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독립은 비교적 일관되게 남녀의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분리, 독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Cambell & Wakins; 1986, 한혜준, 1993; 진수경, 1995)와는 차이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하위영역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통합은 남자 대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투사와 정서단절은 여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들이 주위환경과 스트레스에 대한 압력에도 신념이나 견해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가족투사에

서 부모간의 갈등에 따른 문제에 투사되는 양은 여학생들보다 높았다. 또한 정서단절 영역에서도 남학생들이 가족을 등지고 반항을 하거나 가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과 장남이나 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남학생들이 부모에게서 부부간의 갈등을 더 많이 투사 받으며 부모의 기대로 인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고자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단절하거나 집을 나가는 행동을 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란(1994), 김보현(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들이 딸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부모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Medinus(1965)와 Scheffer & Bayley(196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윤정연, 2001, 재인용). 또한 김미정(199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통합 척도를 제외한 하위영역 변인 모두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 과도 유사하며 이정숙, 김윤희(2000)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간의 반응특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자아의 통합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대체로 외부압력과 자신과의 신념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분화 하위영역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을 연구한 이정숙, 김윤희(2000)의 연구에서는 외동인 경우가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속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으며 중간과 막내인 경우는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먼 것을 동적가족화 반응특성상의 유의미한 차이로 알아내었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막 탈피하여 자신의 위치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은 원인과 더불어, 맏이가 집안을 일으켜 세울 대들보로 여겨지며 다른 형제들의 희생 속에 공부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의 학생들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하위영역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거와 비동거의 빈도상의 현저한 차이가 한 원인으로 여겨지며, 비동거인 경우에도 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 등으로 여겨진다.

자아분화와 K-HTP 반응특성과의 차이에서의 해석은 하위영역을 합친 자아분화전체와 집, 나무, 사람, 전체양식별로 나누어 세부변인에 대해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 K-HTP 집그림양식과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집그림양식에서는 굴뚝의 연기, 커튼, 뾰족지붕, 지붕기와의 세부묘사, 문, 지붕과 집의 비율, 강한 선의 표현 변인이 자아분화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의 연기가 없고, 지붕과 집의 비율이 균형적이며 강한 선으로 표현될 때 자아통합의 분화수준이 높았다. 굴뚝의 연기는 피검자의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거나 가정환경내의 갈등이나 정서 혼란이 있음을 나타내는데(Hammer, 1958), Lewin 과 Goldstein (1958)의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그림은 정상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굴뚝의 연기를 그린 것으로 밝혀졌고, Blaine, Bergner, Lewis, & Goldstein(1981)은 학대받은 아동의 HTP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 굴뚝의 연기가 나며, 1층에 창문이 없고, 팔, 다리의 크기가 현저하게 다르며, 기하학적인 모습의 사람을 그리고, 팔이 없으며, 머리가 전체 크기의 1/4을 넘는 인물을 그린다고 하였다(Maxine, 1998, 재인용). 이는 자아분화와 가정환경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커튼의 유무 변인에서는 커튼이 있을 때 가족투사 수준이 높았다. 커튼의 해석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타인과의 교섭을 싫어하고 의심, 폐쇄적인 사고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高橋雅春(1974)에 의하면 커튼과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지 않은 집그림은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Buck(1948)은 커튼이 없는 그림은 피검자의 행동이 무디고 둔감해서 요령과 재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커튼이 있을 때 투사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Buck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자녀에게 부부간의 문제를 투사하는 양이 작을수록 자녀들은 그 가정에 대해 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붕과 집의 비율 변인은 자아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지붕은 정신생활 특히 생활의 공상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큰 지붕은 공상에 열중하며 대인관계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Hammer, 1955). 그러므로 지붕과 집의 비율 변인에 따라 자아통합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아(眞我)와 가아(假我)가 균형있게 자리잡지 못하고 가아부분이 커지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결국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강한 선을 표현한 집단이 자아통합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양가감정으로 해석된다.

지붕이나 기와에 부속물이나 세부묘사가 있을 경우 가족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당한 세부묘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면을 의식하고 처리해가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족퇴행이 낮은 사람들은 가족간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인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폭력

이나 동질화를 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이영호, 양의홍, 김종술(1984)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정상아동과 비교한 결과, 집그림에서 지붕이나 기와 등의 무늬를 적게 그렸고, 사람그림에서 측면을 그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얼굴을 직선이나 점을 사용하여 눈, 코, 입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김선애(1993)의 연구에서는 정서장애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지붕이 삼각형 모양을 한 단면적 집을 많이 그렸다고 보고하였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족구성원들이 퇴행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다 자주하게 되는 낮은 가족퇴행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이 평면·단층·뾰족지붕의 형태를 많이 그리는 것은 높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강한 선의 표현에서는 강한 선이 없을 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점수가 높았다. 집그림에서의 강한 선은 주로 벽의 선들이 강하게 그려진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벽의 선이 강한 것은 자아의 강함과 관계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자신을 통제하고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강한 선은 피검자의 긴장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격적이거나 독단적이며 양가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진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단절 영역과 차이를 보인 변인은 문으로 나타나 문이 작은 사람이 정서단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문은 외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큰 문은 외부세계와 타인과의 교류에서 적절한 사회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高橋雅春, 1974), 작은 문은 환경과의 접촉을 꺼리고 무력감에 지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단절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이 작은 문을 그리는 것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정서적 거리감을 많이 두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K-HTP 나무그림양식과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나무그림 양식에서 나뭇가지, 뿌리, 열매, 나무에 비해 큰 수관, 가지 끝이 열려 있는 나무,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 기울어진 나무, 나무의 기저선이 자아분화와 차이를 보였다.

나뭇가지는 피검자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주며(Hammer, 1958)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상호작용 하는지의 능력을 나타내고(Stephanie, 1996), 환경에서 만족을 구하고 타인과 교섭하여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검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가능성, 적응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나뭇가지의 표현은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에 대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표이기도 하다. 김선애(1993)의 정서장애아동 판별기능 연구를 위한 HTP 검사에서도 정서장애아동이 나뭇가지를 생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뿌리가 없는 경우 정서단절영역의 분화수준이 높았다. 뿌리는 피검자가 현실을 지배하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지면 밑에 감추어진 뿌리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면을 통해 뿌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것은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무뿌리의 강조는 미성숙이나 정착되지 않은 일과 관련 과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뿌리를 그린 대학생들은 부모와 단절하려 하지만 부모와의 미해결된 감정으로 인해 과거의 문제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김숙희(1985)의 연구에서 비정상인 집단이 나무뿌리를 많이 그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신수현(1982)의 연구에서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79%가 뿌리를 그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열매 변인은 전체자아분화 수준과 가족투사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열매를 그린 사람들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열매는 아동에게 있어서 의존욕구를 나타내고 양육되고 싶은 소망으로 인한 퇴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Naohiko Fukada(1969)도 꽃과 열매는 퇴행의 표시라고 하였다. 이영호, 양익홍, 김중술(1984)의 연구에서도 정상군에 비해 불안군이 열매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크고 좋은 열매는 욕구에 대한 정도(한국심성교육개발원, 1998)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열매가 있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에게 열매의 의미는 강한 성취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무에 비해 큰 수관은 자아통합, 가족투사와 차이가 있었으며, 기울어진 나무는 자아통합과 차이가 있었다. 즉 수관이 크고 기울어짐이 없는 나무일 때 분화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관이 큰 나무그림은 자신감과 야망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사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고, 기울어진 나무는 자기 방어적이고 내향적이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저선은 일반적으로 불안정을 나타낸다(Buck, 1948). 신수현(1982)의 연구에서도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의 아동은 81%가 기저선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저선을 그리지 않은 대학생들의 자아통합 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위장된 자아로 타인과 교류하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며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은 보통 불안을 나타내고 음영이 나타난 부위는 그 부위의 갈등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적 기능 영역과 자아통합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집 그림에서 강한 선의 표현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자아통합 영역만의 특성이거나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에 대한 다른 해석일 수도 있다. Jolles(1952)에 의하면 적당한 음영을 칠하는

사람은 타인과 표면적으로 잘 교제하여 나가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음영이 전혀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굴종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학자마다 연구에 관한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본 연구도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일관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 K-HTP 사람그림양식과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사람그림 양식에서는 눈, 입, 목, 얼굴만 있는 경우, 측면이거나 후면의 인물상, 딱딱한 자세, 약하고 희미한 선, 인물의 운동성과 하나 이상의 인물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은 지적인 영역 및 통제력의 영역인 머리와 감정 및 충동의 영역인 몸통을 연결시키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크기의 균형 잡힌 목을 그리는 사람은 충동을 통제하며 교양 있는 사람이 그리기가 쉽고 목의 생략은 자기애적인 성향과 미성숙한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통제력의 부족을 보인다고 하였다. Schildkrout(1972) 등이 청년기 인물화검사에서 지적했던 평가기준에서도 목의 생략은 충동성의 조절장애를 나타낸다고 한다. 즉,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높으므로 목의 생략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딱딱한 자세 또한 외부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Schildkrout(1972) 등에 의하면 로봇체형이나 사각의 어깨는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였다. 박혜련, 김재환(1992)이 행동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적 가족화 검사를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행동장애집단이 부동자세나 막대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영호, 양익홍, 김중술(1984)의 연구에서도 불안군의 아동이 어깨를 과장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측면그림은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고립된 상태임을 나타내며, 뒤로 향해 등을 보인 그림도 도피적이고 움츠러드는 성격과 관련한다. 양익홍(1984)의 연구에서도 정상아동에 비해 정서장애 아동이 등을 보인 인물을 더 많이 그렸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입이 없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나타낸다. 또한 눈의 생략도 외부세계에 대한 회피를 시사하는데 이는 가족투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사된 자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양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하기 때문에 매우 무력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Sobel과 Sobel(1976)이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적가족화 검사를 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신체부위를 생략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불안감과 신체부위의 생략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응집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영석(1994)도 신체부위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성 변인과 관련하여 양익홍(1984)이 정서장애자를 대상으로 동적가족화 요인분석을 한 결과 자기상의 운동변인들이 유의미하게 부적응 점수를 나타내었다. Sobel과 Sobel(1976)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정상청소년에 비해 비활동적으로 나타났는데 정서단절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운동성이 낮은 것과 비행청소년이 활동성이 낮은 것은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많고 능동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집단일수록 정서단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네째, K-HTP 기타양식과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면

기타양식에서는 그림의 조화성, 필압, 그린 순서, 나무의 종류와 형태, 타인의 존재여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이 조화로울수록 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검자의 전체적인 적응수준이나 성숙도 등의 좋은 지표가 된다.

필압은 스케치선이 다른 선보다 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선이 굵고 강하면 일반화된 긴장감을 나타내고, 선의 사용이 다양하고 조화로운 그림은 건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며 (Buck, 1948), 필압이 약한 것은 적응이 적절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거나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이 많은 불안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Buck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린 순서 변인에서 집부터 그린 경우가 정서단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집단이 집을 나중에 그리고 가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밀한 집단이 제일 먼저 집을 그리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나무의 형태 변인에서는 집 쪽으로 향한 나무가 정서단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집에 대해 안정적으로 느끼는 집단이 집과 나무를 가까이 그리고 집을 제일 먼저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무의 종류 중에서도 과일나무를 그린 집단이 가장 높은 정서단절 수준을 보였는데 열매가 있는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타인의 존재여부 변인에서 현재의 가족을 함께 그린 집단이 높은 분화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이라기 보다는 적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너무 높으면 부적응적이라는(Minuchin, 1974; Bowen, 1978)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이민수(2000)의 연구와, 이영석(1994)의 연구에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장 낮은 극단가족으로 갈수록 가족 외 타인묘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결과이다. 즉,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현실의 자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가족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본 자아분화의 하위영역과 K-HTP 반응특성에 관한 해석으로 전체 자아분화와 연관지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은 적당한 세부묘사를 표현한 집단이

문제해결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면을 처리해가는 능력이 높아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문이 작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문이 큰 집단이 외부환경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높은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나무그림에서의 열매는 대학생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집단이 보다 능동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에 대해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딱딱한 자세나 측면그림을 그린 집단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대학생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높은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집을 먼저 그리는 대학생들이 자아분화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가정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K-HTP 반응특성과 자아분화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집그림 양식에서 굴뚝, 문의 크기, 지붕이나 기와의 세부묘사, 평면이고 단층이며 뾰족 지붕, 커튼, 지붕과 집의 비율, 강한선의 표현 변인이었고, 나무그림 양식에서는 열매, 뿌리, 나뭇가지, 가지끝이 열려있는 경우, 수관의 크기, 기울어짐, 기저선, 음영이나 사선의 표현 변인이다. 사람그림 양식에서는 측면그림, 딱딱한 자세, 목, 눈, 입, 얼굴만 그린 경우, 인물의 운동성, 하나 이상의 인물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타양식에서는 그림을 그린순서, 필압, 그림의 조화, 나무의 종류, 나무의 형태, 타인의 존재여부가 변별을 나타내는 유의한 변인들이었다.

따라서 K-HTP는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K-HTP를 활용하여 자아분화 수준을 조사한 연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고 본 연구의 몇 가지 변인들은 영역별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분화와 K-HTP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표집에 있어 대학생의 분포가 1학년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라는 한 지역의 대학을 선정한 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폭넓은 후속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림검사의 가장 큰 제한점인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 한 가지 그림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결론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동적 가족화나 동그라미 가족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등을 배터리로 함께 실시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

셋째, 그림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별적 검사가 아닌 단체로 실시한 점도 그림검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점으로 생각되며, 이는 채점과정에서도 보다 다양한 피검자의 표현을 반영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질적인 연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5월 13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20일

【참 고 문 헌】

- 공마리아(2002). 장애아의 부모의 특성불안과 K-HTP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9(2), 57-72.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라, 박혜인(200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건강도 지각 관련변인연구. 과학논집, 27(1), 19-37
- 김동연, 공마리아, 최희선(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 동아문화사
- 김동연, 최희선(1997). 도시여성의 특성불안과 K-H-T-P 반응특성. 미술치료 학회지, 4(2), 85-98.
- 김동연, 백양희, 장영숙(1997).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K-H-T-P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1), 43-55
- 김미정(1997).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분화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3).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현(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재(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1993). H·T·P 투사그림기법의 정서장애아동 판별기능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희(1985). 한국정상인과 비정상인의 H·T·P검사 반응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문화사.
- 김치영(199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2001). 인터넷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제1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서울 : 정보통신윤리.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남, 박광식(1996). 정신분석과 예술. 임상연구논집, 77-100.
- 도석봉(1999).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화, 천성문, 최정훈(1996).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대학상담연구, 7(1), 107-134
- 문혜숙(1998).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EQ함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화(2002). 통합적 H-T-P 검사 반응의 발달적 경향.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라(2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집단미술활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02). 집단미술활동이 저소득층 문제 아동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00).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욱(1984). 대학생들의 문제경향 비교. 학생지도연구, 5(2), 3-31.
- 박혜련, 김재환(1992). 행동장애청소년의 운동성가족화검사 반응 특성.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제11집, 164-186.
- 한국심성교육개발원(1998). 상담의 효율성을 위한 미술치료. 한국심성교육개발원.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승희(1999). 가족환경변인 및 자아분화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간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현(1982). 나무그림검사에 대한 한국정상아동의 반응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익홍(1984). 정상아동과 정서장애아동의 운동성 가족화검사 반응의 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금(2001). 대학신입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연(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00).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양익홍, 김중술(1984).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H·T·P반응. 정신의학보, 8(11), 374-377.
- 이영석(1994).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주은선(2003). Cultural Factors in the Kinetic - House -Tree -Person (K-H-T-P) Assessment. 상담학 연구,

- 4(2) 347-358
- 이정숙, 김윤희(2000).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29-445
- 이혜숙(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나영(2000).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우울정도에 따른 그림검사상의 특징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동숙(2003). 자기표현훈련과 K-H-T-P검사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희(1988). 청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학생생활연구*, 6(1), 51-63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집(1978). 한국 정상아동의 H-T-P 검사 반응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 박수선(1999).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서원대학교 학생 생활연구*, 17집, 81-95
- 주미혜(2001).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심리 이해와 기독교교육적 제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승은, 한경혜(1999). 청소년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경험이 독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4(27), 131-151.
- 최외선, 백양희(1997). 환경변인에 따른 도시여성의 K-HTP에 의한 집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2), 99-113
- 최외선, 오미나(200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우울 및 K-H-T-P 반응특성 비교. *미술치료연구*, 9(2), 1-26
- 태옥경(1998).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thy A. Malchiodi. 최재영, 김진연 역(2001). *미술치료*. 조형교육.
- 장호균, "사이버 자아". *한겨레* 21. 2003. 7.30.
<<http://www.media.daum.net>>
- 뉴스스. "지로문제 고민하던 대학생 목 매 자살". 2003. 7. 28.
<<http://news.media.daum.net>>
- 오마이뉴스 "너희를 이 세상에 맡길 순 없었어". 2003. 7. 19.
<<http://news.media.daum.net>>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Bowen, M.(1960).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Inc Jackson, D.D(Ed),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 An intergrated Approach*. New York : Ronald Press.
- Buck, J. N.(1948). The H-T-P technique :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Monographs*, 4(4), 1~120.
- Burns, R. C., & Kauffman, S. H.(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 An Interpretative Manual*. New York : Brunner / Mazel.
- Burns, R. C.(1987).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s (K-H-T-P) : An interpretive manual*. New York : Brunner / Mazel.
- Hammer, E. F.(1955). *The H-T-P clinical research manual*. Call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ammer, E. F.(1958). *The clinical application of projective drawings*. Springfield, IL : Chales C. Thomas, Co.
- Hammer, E. F.(1960). The House-Tree-Person(H-T-P) drawings as a projective technique with children. In A.I. Rabin & Mary, R. Haworth(Eds.), *Projective techniques with children*. New York; Grune & Stratton.
- Hartman, A.(1981). Bowen family system : theory and practices. In E. R., Tolson, W. J., Reid(ed.). *Models of family treatment*. N.T. :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ffman, J. A. and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Hovestadt, A. J., Anderson, W.T., Piercy, F.P., Cochran, S.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Jolles. I.(1952). *Catalogue for the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H-T-P*. Call.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opez, F. G., Campell, V. L. & Watkins, E.(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e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1), 52-56
- Maxine, M. W.(1998). Meta-Analysis of studies assesing the efficacy of projective techniques in discriminating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Abuse & Neglect*, 22(11), 1151-1166.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 Schildkrout, M. S., Shenker, I. R., & Sonnenblick, M.(1972). *Human Figure Drawings in Adolescence*. New York : Brunner / Mazel.
- Sobel, M., & Sobel, W.(1976). Discriminating adolescent male delinquents through the use of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ersonality Aesessment*, 40, 91-94.